

부모의 가공식품 소비행태가 자녀의 식생활에 미치는 영향 - 경북지역 초등학생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서재화* · 김유경*¹⁾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Mothers' consuming behavior of processed foods influences their children's dietary life in kyungpook province

Jae-Hwa Seo* · Yoo Kyeong Kim*¹⁾

*Dept. of Home Economic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research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mother's influence on their children's dietary life. We surveyed 312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their mothers in kyungpook province, and analyzed the responses using SAS 8.0 statistical program. The results showed that mothers' consuming behavior of processed foods was closely related to their children's dietary life. In detail, mother's preference, eating frequency, positive recognition on processed foods negatively affect on their children's dietary habit and snacking behavior. Also, the children whose mother has higher preference on processed foods showed significantly higher preference on cereals($p<0.05$), fast foods($p<0.001$), and carbonated beverages($p<0.001$). Interestingly, mother's influence was stronger on children's eating frequency than preference of processed foods. The children whose mother has higher preference and eating frequency of processed foods ate significantly less vegetables($p<0.001$), milk products($p<0.05$), and more cereals($p<0.001$), noodles($p<0.001$), confectionary($p<0.001$), fast foods($p<0.01$), carbonated beverages($p<0.01$). These results show that mothers' consuming behavior of processed foods significantly influences on their children's dietary life, which suggests the importance of mother's reasonable consuming attitude and behavior on dietary life. To promote children's healthy dietary life, therefore, the education programs for parent and children should be developed and practically used at school.

Key words: 초등학생(elementary school student), 어머니의 영향(mother's influence), 가공식품(processed foods), 식생활(dietary life), 소비행태(consuming behavior)

1) 교신저자: Yoo Kyeong Kim,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80 Daehakro, Bukgu, Daegu 41566 South Korea
Tel: +82-53-950-5929, Fax: +82-53-950-5924, E-mail: yookim@knu.ac.kr

I. 서론

경제성장으로 인한 소득증대,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1인 가구의 증가 등 생활양식의 변화로 인하여 간편성을 추구하는 식생활 양식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즉석가공식품(instant food), 즉석요리식품(fast food), 편의식품(convenience food)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가공식품이 개발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구매하여 바로 먹거나 간편하게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가정식사 대용식(HMR)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An & Kang, 2006; Kim, 2013). 농림축산식품부(2014)가 발간한 ‘가공식품 소비자태도조사’에서도 식품구입에서 가공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1년 28.7%에서 2013년 45.3%로 급증하였고, 간편식품 구입 경험은 2011년 40.5%에서 2013년 61.9%로 증가하였다고 보고되었다. 이러한 양적 성장의 이면에 식품첨가물을 비롯하여 가공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Kim et al., 2000). 이렇게 가공식품이 우리 식생활에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수록 가공식품의 선택과 구매에 보다 신중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이 필요하다.

학령기는 신체적 성장이 활발하고 지적, 정서적으로 성숙해지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 충분한 영양섭취는 아동의 신체적 성장 발육을 돕고,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며, 정서적 안정에도 기여하므로, 결국 한 인간의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더구나 학령기는 식습관이 형성·고정되는 시기이고 학령기 아동의 식생활은 그 시기의 건강 상태뿐 아니라 성인이 된 이후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이 시기에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Kim, 1982). 초등학교 교사들은 아동들의 주요 식생활 문제로 잘못된 식습관(37.7%)과 가공식품 및 인스턴트식품의 잦은 섭취(36.2%)를 지적하였으며(Jung, 2012), 특히 가공식품 섭취 빈도와 아동의 충동성 및 공격성 사이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Kim, 1982; Kim & Seo, 2012).

개인의 식사는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부모가 자녀의 식습관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고(Kirk, 1986; Evans, 1995; Cullen, 2000), 특히 어머니에 의한 자녀의 식습관 변화율은 70% 이상이라고 한다(Kim, 1982). 사춘기 직전과 사춘기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우유 섭취에

어머니의 영향력이 컸으며, 우유를 많이 마시는 아이들은 부모가 원하기 때문에 학교에 다녀와서 우유를 마셔야 한다고 대답하였다(Auld, 2002). 이처럼 부모, 특히 어머니의 영향은 아이들의 식사에 크게 작용하고 있었으며(Evans, 1995), 영양교육에 부모를 참여시켰을 때 자녀의 장기적인 식행동이 긍정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다(Kirk, 1986). 아동의 식품 선택은 가정 환경, 사회·문화적 환경 등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데, 특히 아동과 부모의 상호관계가 중요하며 부모의 식습관과 식품 선호도, 영양정보, 자녀에 대한 배려 등은 아동의 식품선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Birch, 1981; Birch et al., 1987; Klesges et al., 1991). 이와 같이 부모의 식품 선택은 자녀들의 식품 기호에 큰 영향을 미치며, 부모와 같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특정 식품을 섭취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되면 그 식품에 대한 자녀의 기호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여 싫어하던 음식도 좋아하게 되는데, 이러한 변화는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크다고 한다(Birch, 1980). 따라서 어머니들의 식품에 대한 이해와 선택의 문제는 자녀의 식생활과 식품선택을 좌우할 수 있으며, 이는 성장하는 어린이들의 신체 발육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령기 아동의 식생활에 부모 특히 어머니의 영향력이 크다는 연구결과들이 발표되었지만, 국내에서 부모와 자녀를 함께 조사하여 그 상관성을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성장기 자녀를 둔 주부들의 가공식품에 대한 선호도, 구매 행동 및 인식에 관한 조사(Kim, 2002; Han, 2006), 초등학교의 식습관 및 식품 기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Han, 2007; Eum, 2008) 등의 연구가 있지만, 이 연구를 통하여 학생과 부모의 관련성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장기에 있는 초등학교를 자녀로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가공식품 소비 행태를 조사하고, 이것이 자녀의 식행동, 가공식품에 대한 기호도 및 섭취빈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부모의 가공식품에 대한 기호도, 섭취빈도, 구매태도 및 인식이 초등학교 자녀의 식습관, 간식섭취행동 및 간식소비행동과 상호연관성이 있는가?
2. 부모의 가공식품에 대한 기호도, 섭취빈도, 구매태도 및 인식이 초등학교 자녀의 가공식품에 대한 기호도 및 섭취빈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II. 문헌 고찰

1. 가공식품의 소비 실태 및 구매 행동

간편함을 추구하는 식생활 양식이 확산되면서 구매하여 바로 먹거나 간편하게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즉석가공식품, 즉석요리식품, 편의식품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가공식품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An & Kang, 2006; Kim, 2013). 최근, 식품구입에서 가공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28.7%(2011년)에서 45.3%(2013년)로 급증하였고, 1인 가구 증가를 비롯한 사회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간편 식품 구입 또한 40.5%(2011년)에서 61.9%(2013년)으로 증가하였다(농림축산식품부, 2014).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식품구입 행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공식품 구입 시 고려하는 요인으로 맛, 제조일자, 용량, 원산지 등 품질측면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소비자의 61.7%가 포장 표기를 확인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유통기한제조일자(64.8%), 원료 원산지(43.2%), 주요 원료 성분(40.4%), 주재료 함량(27.2%), 제품 생산지 순(26.4%)으로 많이 확인하였다. 간편식 구입 경험은 2013년 기준 61.9%이고, 여성(65.5%), 30대(69.9%), 미혼(63.8%), 소득이 높을수록(월 500만원 이상, 67.8%) 구입경험이 더 많았다. 간편식의 구입 목적은 시간절약(39.6%), 직접 조리보다 저렴(20.6%), 맛(10.9%) 순이었으며, 구입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맛과 안전성을 들었다. 한편 소비자들이 가공식품 구입 시 가장 우려하는 사항으로 식품첨가물(37.4%), 높은 칼로리(21.5%), 과도한 지방(11.8%), 유전자 변형 식재료(4.3%) 등을 꼽았는데 이는 주로 건강에 대한 관심도를 반영한 것이다. 특히, 자녀가 있는 여성은 프리미엄 가공식품을 선호하였는데, 그 이유로 좋은 원료(35.9%), 맛(21.2%), 첨가물이 적어서(20.4%), 건강에 좋아서(8.4%) 등을 꼽았다(농림축산식품부, 2014).

이렇게 가공식품이 우리 식생활에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수록 가공식품의 첨가물 및 식재료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Kim et al, 2000). 실제로 절반 이상의 소비자들은 되도록 가공식품을 먹지 않으려 노력한다고 응답하였고 자녀가 있는 여성은 일반 식품보다 제품 안전성을 비롯하여 품질이 우수한 프리미엄 가공식품을 선호하였다(농림

축산식품부, 2014). 이는 가공식품의 구입이 증가하는 경향과는 다소 상반된 결과이며 가공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를 반영한다. 그러므로 가공식품의 선택과 구매에 보다 신중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이 필요하다(You & Sim, 1998).

상품에 대한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 경향을 의미하는 소비자 태도는 한번 형성되면 쉽게 변화되지 않지만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소비자태도가 변화될 수도 있다(Huang, 1993; Engel et al., 1995). 태도는 소비자의 인지과정을 통해 주로 형성되지만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감정과 같은 비인지적인 요인도 영향을 미친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의사결정과 관련된 지식수준이 낮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식품에 대한 태도 형성이나 선택을 직관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직관적 사고는 주로 개별 경험이나 느낌 또는 이미지 등으로부터 얻어지는 정보를 통해 태도를 형성되기 때문에 감정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식품관련 소비자태도를 식품 관여도(food involvement)와 식품 저항감(food neophobia)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기도 하는데, 식품 관여도는 개별 소비자가 일상생활 속에서 식품에 대해 지각하고 있는 수준을 의미하며 식품 저항감은 소비자들이 새로운 식품의 선택을 꺼리는 정도(저항감)를 나타낸다. 식품 관여도가 높은 사람은 식품을 섭취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생각하고 이러한 생각이 태도로 연계되는 반면 식품 저항감이 큰 소비자는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식품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다(Bell & Marshall, 2003; Chen, 2007). 이러한 개별특성요인은 소비자태도에 영향을 주며 소비자 태도는 소비환경·성별, 연령, 결혼 및 소득 등-에 의해 결정된다고 알려져 있다(Huang, 1993).

2. 학령기 식습관의 중요성

학령기(만7~12세)는 신체적 성장과 발육이 활발하고 사물을 판단하고 통합하는 인지능력이 성숙하는 시기이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여 신체적·정신적 성장에 필요한 여러 가지 영양소를 다양한 식품을 통하여 섭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Kim, 1982).

식습관은 인간이 오랜 시일을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문화·경제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으로 장기간에 걸쳐 먹어 온 음식의 유형을 뜻한다. 따라서 인간과 식품 사이

에 나타나는 하나의 생활양식으로서 다른 행동양식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Cullen et al., 2000; Ku & Seo, 2005). 식습관 형성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의 내·외적인 요인으로 구분하며, 외적인 요인으로 가족특성, 부모의 식습관, 우상적 인물, 사회적·문화적 규범이 있고, 내적인 요인으로 개인의 생리적 특성 및 영양요구량, 이상적인 체형에 대한 인식, 개인적인 가치관과 믿음, 자아개념, 기호, 심리발달상태 및 건강 등이 있다(Bell & Marshall, 2003; Lee & Jung, 2004) 그 중에서도 영양상 합리적인 식습관을 갖게 하는 데는 가정환경, 특히 부모들의 식습관이나 어머니의 식생활 관리태도가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는 어린 시절에서부터 어머니가 그들의 자녀에게 신체적, 정신적 발육에 적합하도록 배려하여 꾸민 식사에 의하여 식습관이 형성되기 때문이다(Kirk & Hughes, 1986; Klesges et al., 1991).

학령기에는 아동의 식습관이 아직 미완성 단계이고 비교적 쉽게 변화가 이루어지므로 올바른 식행동이나 식습관을 갖도록 지도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이며, 이때 형성되는 식습관은 일생동안 지속될 수 있다(Birch et al., 1981; Birch, 1987). 또한, Hertzler(1983)는 학교생활을 통하여 또래 집단 사이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이 이 시기의 식습관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에 올바른 영양지식을 습득하고 다양한 식품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성인이 되어서도 균형 잡힌 식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식습관의 개인차는 유아기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여 10대 후반에 정착되며 특히 학령기에는 식습관을 비롯한 기본적인 생활습관을 훈련하는 시기이므로 체계적인 지도를 위해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식행동은 단기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이유기로부터 장기간에 걸친 가정교육, 학교 및 사회 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일단 형성된 식행동은 변화시키기 어렵다. 그러므로 어린 시절

특히, 초등학교 시절의 교육은 매우 중요하며 이유기로부터 시작되는 식행동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이 시기에 영양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올바른 식습관을 확립하고 식행동을 개선할 수 있다(Kim & Kim, 2003; Jung & Lee, 2007; Kim & Jung 2010).

III.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를 위하여 경상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3개 초등학교의 4, 5, 6학년 남·여 학생 360명과 부모(어머니) 360명을 대상으로 2010년 9월 15일에서 2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앞서 대구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과 부모 각 3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분석결과를 기초로 질문지를 수정·보완하였다. 설문조사를 위하여 담임교사에게 질문지의 구체적인 내용 및 작성요령을 설명한 후, 담임교사를 통하여 설문지를 설명하고 배부·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부모 및 학생 각각 336부였으며, 이 중 부실 기재한 24부를 제외하고 312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 조사 내용 및 방법

설문지는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다. 부모의 가공식품 구매행동은 구입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mothers and their children

mothers		N(%)		children		N(%)	
		312(100)				312(100)	
employment	yes	312(100)		gender	boys	136(43.59)	
	no	160(51.28)			girls	176(56.41)	
age	≤ 40	153(49.03)		grade	fourth	95(30.45)	
	41~45	112(35.90)			fifth	112(35.90)	
	≥ 46	47(15.06)			sixth	105(33.65)	

금액, 구매 장소, 식품 선택 기준 및 구매 이유 등을 묻는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Chang, 1996; Ly et al., 2001; Kim & Kim 2005). 부모의 가공식품 섭취실태 및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가공 식품의 선호도 및 섭취빈도, 가공식품 구매 시 표시사항 확인 정도, 가공식품에 대한 인식을 묻는 30문항으로 구성하였다(Chang, 1996; Ly et al., 2001; Kim & Kim 2005), 가공식품 선호도와 섭취빈도는 식품 유형을 면류, 과자류, 육가공품, 어류 가공식품, 냉동 식품류, 음료류, 즉석식품(레토르트)으로 구분하여 각각 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가공식품 구매 시 확인하는 표시사항은 유통기한, 가격, 제조회사, 원료 및 함량, 식품 첨가물, 원산지, 보관상 유의사항을 묻는 7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이 척도의 Cronbach' α 계수는 0.842였다. 가공식품에 대한 인식은 가공식품의 위생, 맛, 품질, 영양, 가격, 편리성, 가족 건강 기여도 측면을 묻는 7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이 척도의 Cronbach' α 계수는 0.826였다.

아동의 설문문항은 일반적인 식습관, 간식 섭취 행동 및 간식 소비행태에 관한 17문항으로 구성하였다(Ro & Jun, 1998; Lee, 2004; Kim & Park, 2004; Ku & Seo 2005). 식습관과 관련된 4문항은 식사의 규칙성, 아침식사 섭취, 한 끼 식사 소요시간 및 편식정도 등으로 구성하였다. 간식 섭취 행동은 간식 섭취 이유 및 횟수, 선호식품, 외식, 과식 등을 묻는 9문항으로 구성하였고, 간식 구입 시 고려하는 사항은 영양성분, 성분표시, 위생상

태, 가격을 묻는 4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이 척도들의 Cronbach' α 계수는 각각 0.725와 0.727였다. 자녀의 식품기호도 및 섭취빈도에 관한 설문문항은 선행연구들(Ro & Jun, 1998; Lee, 2004; Kim & Park, 2004)을 기초로 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음식명에 따른 기호도 및 섭취빈도를 묻는 13문항으로 각각 구성하였다. 음식명은 자녀들이 간식으로 주로 먹는 과일류, 유제품류, 서류, 찌리얼류, 면류, 빵류, 분식류, 과자류, 병과류, 당류, 탄산음료, 과일음료, 패스트푸드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매우 그렇다(5점)', '대체로 그렇다(4점)', '보통이다(3점)', '그렇지 않다(2점)', '전혀 그렇지 않다(1 점)'로 점수화 하였으며, 섭취 빈도는 '매일 먹는다(주 6~7회)(5점)', '일주일에 3~5회(4점)', '일주일에 1~2회(3점)', '월 3회 이하(2점)', '거의 먹지 않는다(1 점)'로 점수를 부여하였다.

3. 자료의 분석 및 통계적 처리

자료 분석은 SAS 8.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교차분석(χ^2), 상관관계분석, t-test,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Duncan의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Table 2. Mothers' purchasing behavior of processed foods

variable	category	N(%)		variable	category	N(%)	
		312(100)				312(100)	
purchasing cost	≤ 5	103(33.01)		purchasing place	supermarket	59(18.91)	
	6~10	134(42.95)			mart	252(80.77)	
	11~20	56(17.95)			internet	0(0.00)	
	21~30	18(5.77)			department store	0(0.00)	
	≥ 31	1(0.32)			convenience store	0(0.00)	
selection criteria	brand reputation	60(19.23)		etc.	1(0.32)		
	sell by date /package	126(40.38)		convenience	153(49.04)		
	experience	35(11.22)		saving time	102(32.69)		
	price	9(2.88)		taste	4(1.28)		
	taste	15(4.81)		availability	18(5.78)		
	nutritional value	17(5.45)		variety	27(8.65)		
children's preference	50(16.03)		etc.	8(2.56)			

IV. 결과 및 고찰

1. 부모들의 가공식품 소비 행태

부모들의 가공식품 소비행태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가공식품 구입비용은 월 평균 ‘5~10만원 미만’을 소비하는 경우가 42.95%로 가장 높았다. 가공식품 구매 장소는 ‘대형할인마트(80.77%)’와 ‘슈퍼마켓(18.91%)’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가공식품 구매 시 ‘대형할인매장(84.6%)’을 가장 선호하는 장소로 응답한 관련 연구(An & Kang, 2006) 결과와 유사하다. 농림축산식품부(2014)가 전국 20세 이상 69세 이하 남녀 성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대형마트가 45.8%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 쇼핑은 아직 비중이 작으나 상승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가공식품을 구매할 때 ‘유통기한 및 포장상태(40.38%)’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그 외 ‘상품평판(19.23%)’, ‘자녀의 기호도(16.03%)’, ‘사용경험(11.22%)’ 순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Kim(2008)의 연구에서도 부모들이 가공식품 선택 시 ‘제조날짜 및 유통기한’을 가장 중시한다고 보고하였고, Kim(2009) 등은 70% 이상의 응답자가 ‘제조날짜 및 유통기한’을 확인한다고 보고하였다. 가공식품 구매 이유로는 ‘조리, 보관의 간편성(49.04%)’ 및 ‘조리 시간 절약(32.69%)’을 우선적으로 꼽았으며, 이는 전체 답변의 80%이상을 차지하였다. 이 역시 Kim(2008)과 Kim(2009) 등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데, 흥미로운 것은 성인들과 달리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들은 ‘맛’ 때문에 선택한다는 응답비율이 각각 37.2%와 37.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부모의 가공식품 소비행태와 자녀의 식행동

부모의 가공식품 소비행태와 자녀의 식행동 요인간의 상관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자녀의 식습관과 부모의 가공식품 선호도($p<0.001$), 섭취빈도($p<0.01$), 가공식품에 대한 인식($p<0.001$) 사이에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자녀의 간식섭취행동과 부모의 가공식품 선호도($p<0.001$), 섭취빈도($p<0.001$), 인식($p<0.001$) 사이에도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자녀의 간식 선택 태도와 부모의 가공식품 선호도($p<0.05$) 사이에도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나, 부모의 가공식품 구매 시 표시사항 확인정도($p<0.001$)와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 결과는 부모의 가공식품 소비행태가 자녀의 식행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가공식품에 대한 부모의 선호도, 섭취빈도, 긍정적인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식습관 및 간식섭취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가공식품을 구매할 때 부모가 식품표시를 확인하는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도 합리적인 소비 행태를 보인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국 자녀의 식생활 전반에 미치는 부모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부모의 가공식품 소비행태가 자녀의 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각 항목별 점수를 기준으로 부모를 상·중·하 집단으로 구분하여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4>. 부모의 가공식품 선호도가 높은 상위 33%를 상집단(4.02±0.32), 선호도 점수가 낮은 하위 33%를 하집단(2.76±0.30), 그 나머지 34%를 중집단(3.36±0.16)으로 분류하였다. 부모의 가공식품 선호도가 높은 상집단의 자녀는 중·하집단 자녀보다 식생활 태도가 바람직하지 않고($p<0.01$), 특히 편식이 심하고 불규칙적인 식사 습관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

Table 3. Correlations of the factors related to processed foods

mothers	children	eating habit	consuming behavior	snacking behavior
preference		-0.213***	-0.220***	-0.129*
eating frequency		-0.184**	-0.195***	-0.057
checking label		0.011	0.094	0.195***
recognition		-0.204***	-0.217***	-0.110

* $p<0.05$ ** $p<0.01$ *** $p<0.001$

Table 4. Dietary behavior of the children according to the mothers' attitude and behavior toward processed foods

mothers	children	eating habit	consuming behavior	snacking behavior
preference	high	3.37(0.64) ^b	3.30(0.53) ^b	3.01(0.42)
	middle	3.63(0.61) ^a	3.34(0.60) ^b	2.99(0.38)
	low	3.65(0.62) ^a	3.58(0.60) ^a	3.10(0.45)
	F-value	6.76 ^{**}	7.50 ^{***}	2.37
eating frequency	high	3.44(0.67) ^b	3.28(0.59) ^b	2.97(0.45) ^b
	middle	3.51(0.54) ^b	3.35(0.54) ^{ab}	3.04(0.36) ^{ab}
	low	3.72(0.62) ^a	3.54(0.61) ^a	3.13(0.41) ^a
	F-value	5.69 ^{**}	5.01 ^{**}	4.40 [*]
label checking	high	3.55(0.72)	3.50(0.58)	3.16(0.47) ^a
	middle	3.53(0.56)	3.41(0.60)	3.01(0.40) ^{ab}
	low	3.55(0.64)	3.33(0.58)	2.95(0.37) ^b
	F-value	0.03	1.88	6.65 ^{**}
recognition	high	3.37(0.66) ^b	3.27(0.51) ^b	3.07(0.44)
	middle	3.60(0.63) ^a	3.40(0.59) ^a	3.06(0.41)
	low	3.67(0.58) ^a	3.58(0.62) ^a	2.98(0.41)
	F-value	6.91 ^{***}	7.23 ^{***}	1.34

*p<0.05 **p<0.01 ***p<0.001

The numbers represent mean(SD).

a, b, c :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리고 부모의 가공식품 선호도가 높거나 중간인 집단의 자녀는 낮은 집단의 자녀보다 식사섭취태도가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p<0.001).

부모의 가공식품 섭취빈도가 높은 상위 33%를 상집단(4.28±0.25)으로, 섭취빈도 점수가 낮은 하위 33%를 하집단(3.11±0.33)으로, 그 나머지 34%를 중집단(3.71±0.12)으로 분류하였다. 부모의 가공식품 섭취빈도가 높은 집단 자녀의 식습관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즉, 부모의 가공식품 섭취빈도가 많으면 자녀는 편식, 불규칙적인 식사 태도를 가지며, 아침 식사 횟수 또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식섭취행동에 있어서도 부모의 가공식품 섭취빈도가 높은 집단의 자녀가 낮은 집단의 자녀보다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간식 선택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가공 식품 섭취 빈도가 높은 집단의 자녀일수록 간식 소비 행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부모의 가공식품 표시사항 확인 정도가 높은 상위 33%를 상

집단(3.61±0.32)으로, 확인 정도 점수가 낮은 하위 33%를 하집단(2.29±0.23)으로, 그 나머지 34%를 중집단(2.94±0.14)으로 분류하였다. 부모의 가공 식품 구매 시 식품표시 확인 정도에 따라 자녀의 식습관, 간식 섭취 행동에 있어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간식 소비 행태에 대해서는 유의적인(p<0.01) 차이가 나타났다. 즉, 부모의 가공식품 구매 시 식품표시 확인 정도가 높을수록 자녀의 간식 소비 행태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이는 자녀가 간식을 선택할 때 간식의 영양성분, 성분 표시, 위생상태, 가격 등을 더 많이 고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의 가공식품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높은 상위 33%를 상집단(3.67±0.32), 인식 점수가 낮은 하위 33%를 하집단(2.54±0.34), 그 나머지 34%를 중집단(3.11±0.11)으로 분류하였다. 부모의 가공식품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에 따라 자녀의 간식 소비 행태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식습관 및 간식 섭취 행동에는 유의적인(p<0.001) 차이가 나타났다. 즉, 부모의 가공식품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정도가 중간이거나 낮은 집단

의 자녀가 인식 정도가 높은 집단의 자녀에 비해 규칙적인 식사를 하며, 식사 시 편식을 하지 않으며, 간식 섭취 행동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3. 부모와 자녀의 가공식품 기호도 및 섭취빈도

부모의 가공식품 기호도 및 섭취빈도에 따른 자녀의 식품 기호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즉, 부모의 가공식품 기호도가 높은 집단의 자녀가 다른 집단에 비해 씨리얼류($p<0.05$), 패스트푸드($p<0.05$), 특히 탄산음료($p<0.001$)에 대한 기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가공식품 섭취빈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의 자녀보다 탄산음료에 대한 기호도가 높게 나타났다($p<0.05$).

부모의 가공식품 기호도 및 섭취빈도에 따른 자녀의 가공식품 섭취빈도를 알아보기 위한 분석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부모의 가공식품 선호도가 상집단의 자녀는 중·하집단의 자녀

에 비해 과일류($p<0.001$), 유제품류($p<0.05$)를 적게 섭취하는 반면, 씨리얼류($p<0.001$), 면류($p<0.001$), 분식류($p<0.01$), 과자류($p<0.001$), 탄산음료($p<0.01$), 패스트푸드($p<0.01$)는 더 자주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가공식품 섭취빈도가 높은 집단의 어린이가 씨리얼류($p<0.001$), 분식류($p<0.001$), 과자류($p<0.01$), 빙과류($p<0.05$), 탄산음료($p<0.001$), 과일주스($p<0.05$), 패스트푸드($p<0.001$) 등을 더 자주 섭취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가공식품 선호도 및 섭취빈도가 가공식품에 대한 자녀의 기호도보다 섭취빈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Kang과 Yoon(2009)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가공식품 선택과 자녀의 가공식품 섭취는 서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Jung, 2012)에서도 잘못된 식습관(37.7%)과 가공식품 및 인스턴트식품의 잦은 섭취(36.2%)를 어린이들의 주요 식생활 문제로 지적하였다.

아동의 식습관은 인성과 연관되며(Kim, 1982; Kim & Seo, 2012), 특히 가공식품의 섭취 빈도와 아동의 충동성 및 공격성

Table 5. Children's food preference according to the mothers' preference and eating frequency of the processed foods

children	mothers preference				F-value	eating frequency			F-value
	mean (N=312)	high (N=88)	middle (N=111)	low (N=113)		high (N=100)	middle (N=88)	low (N=124)	
fruits	4.38(0.78)	4.28(0.80) ¹⁾	4.38(0.82)	4.46(0.72)	1.52	4.34(0.78) ¹⁾	4.32(0.85)	4.48(0.69)	1.36
milk products	3.83(0.92)	3.74(0.92)	3.92(0.91)	3.84(0.92)	0.93	3.80(0.85)	3.85(0.96)	3.83(0.93)	0.07
potatoes	3.79(0.96)	3.72(0.95)	3.85(0.96)	3.82(0.97)	0.56	3.79(0.91)	3.76(1.04)	3.83(0.91)	0.14
cereals	3.52(1.04)	3.73(1.01) ^a	3.45(1.00) ^{ab}	3.35(1.08) ^b	4.20 [*]	3.72(1.10)	3.48(0.96)	3.37(1.06)	2.83
noddles	3.84(0.96)	3.87(0.93)	3.89(0.92)	3.78(1.01)	0.39	3.83(0.95)	3.85(0.98)	3.83(0.94)	0.02
bread	3.55(1.01)	3.68(0.98)	3.37(1.00)	3.56(1.05)	2.39	3.65(1.01)	3.48(1.01)	3.54(1.02)	0.78
flour based food	3.73(0.98)	3.82(0.97)	3.67(1.06)	3.68(0.93)	0.84	3.74(1.08)	3.78(0.90)	3.66(0.98)	0.39
confectionery	3.56(0.96)	3.61(0.97)	3.60(0.93)	3.49(0.98)	0.51	3.65(0.99)	3.50(0.90)	3.56(1.01)	0.70
ice cakes	3.88(0.86)	3.88(0.87)	3.98(0.85)	3.81(0.85)	0.90	3.88(0.93)	3.90(0.80)	3.87(0.86)	0.03
sweets	3.04(1.11)	3.13(1.15)	2.98(1.08)	3.00(1.08)	0.61	3.04(1.12)	2.99(1.13)	3.10(1.07)	0.26
carbonated drinks	3.17(1.09)	3.44(1.03) ^a	3.16(1.07) ^b	2.89(1.09) ^c	7.50 ^{***}	3.37(1.03) ^a	3.21(1.08) ^{ab}	2.92(1.11) ^b	4.42 [*]
fruit juices	4.06(0.89)	4.04(0.84)	4.07(0.94)	4.08(0.91)	0.08	4.04(0.85)	4.03(0.97)	4.11(0.84)	0.22
fast food	3.36(1.05)	3.58(1.02) ^a	3.28(1.05) ^b	3.20(1.05) ^b	4.11 [*]	3.37(1.01)	3.48(0.92)	3.20(1.20)	1.93

* $p<0.05$ ** $p<0.01$ *** $p<0.001$

The numbers represent mean(SD).

a, b, c :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Table 6. Children's eating frequency according to the mothers' preference and eating frequency of the processed foods

children	mothers preference					eating frequency			
	mean (N=312)	high (N=88)	middle (N=111)	low (N=113)	F-value	high (N=100)	middle (N=88)	low (N=124)	F-value
fruits	3.72(0.95)	3.46(0.95) ^b	3.87(0.89) ^a	3.88(0.93) ^a	7.18***	3.66(0.96)	3.73(0.90)	3.78(0.99)	0.37
milk products	3.76(1.16)	3.53(1.15) ^b	3.89(1.14) ^a	3.89(1.16) ^a	3.51*	3.59(1.15)	3.85(1.17)	3.81(1.14)	1.52
potatoes	2.47(0.91)	2.43(0.91)	2.49(0.91)	2.49(0.93)	0.15	2.55(0.93)	2.34(0.87)	2.55(0.94)	1.88
cereals	1.93(1.09)	2.25(1.21) ^a	1.77(0.96) ^b	1.74(0.98) ^b	7.74***	2.28(1.16) ^a	1.85(1.05) ^b	1.69(0.98) ^b	8.07***
noddles	2.66(0.82)	2.88(0.79) ^a	2.82(0.74) ^a	2.31(0.81) ^b	17.50***	2.91(0.81) ^a	2.73(0.78) ^b	2.35(0.78) ^c	12.61***
breades	2.49(1.00)	2.66(1.00)	2.44(1.04)	2.36(0.95)	2.86	2.62(1.06)	2.51(0.95)	2.34(0.98)	1.99
flour based food	2.48(0.96)	2.73(1.04) ^a	2.34(0.85) ^b	2.34(0.91) ^b	6.25**	2.58(1.01)	2.53(0.99)	2.34(0.87)	1.74
confectionery	2.93(0.98)	3.12(0.98) ^a	3.03(0.88) ^a	2.65(0.99) ^b	7.53***	3.22(0.95) ^a	2.87(0.91) ^b	2.72(1.03) ^b	6.95**
ice cream	3.06(0.89)	3.15(0.94)	3.10(0.82)	2.94(0.89)	1.75	3.18(0.89) ^a	3.13(0.89) ^a	2.87(0.88) ^b	3.51*
sweets	2.19(0.93)	2.25(0.90)	2.17(0.94)	2.13(0.94)	0.44	2.35(0.92)	2.15(0.96)	2.08(0.88)	2.22
carbonated drinks	2.40(0.98)	2.63(1.03) ^a	2.38(0.93) ^b	2.18(0.92) ^c	6.14**	2.68(1.03) ^a	2.38(0.90) ^b	2.14(0.95) ^c	7.86***
fruit juices	2.91(1.04)	2.98(1.01)	2.98(1.05)	2.79(1.05)	1.27	3.16(1.03) ^a	2.77(1.01) ^b	2.84(1.03) ^b	4.11*
fast food	1.89(0.76)	2.06(0.86) ^a	1.87(0.66) ^{ab}	1.74(0.71) ^b	5.14**	2.09(0.80) ^a	1.88(0.74) ^b	1.72(0.71) ^b	6.08***

*p<0.05 **p<0.01 ***p<0.001

The numbers represent mean(SD).

a, b, c :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사이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므로 아동들의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올바른 식품 선택이 중요하고 이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부모의 가공식품 소비행태가 초등학생 자녀의 식행동-식습관, 식품 기호도 및 섭취빈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수행하였다. 경상북도에 소재하는 3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312명과 그들의 부모 3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과와 그로부터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가공식품에 대한 부모의 선호도, 섭취빈도, 긍정적인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식습관 및 간식섭취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가공식품을 구매할 때 부모가 식품표시를 확인하는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도 합리적인 소비행태를 보였다.

자녀의 가공식품에 대한 기호도 및 섭취빈도 역시 부모의 영향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가공식품 기호도가 높은 집단의 자녀가 씨리얼류(p<0.05), 패스트푸드(p<0.001), 탄산음료(p<0.001)에 대한 기호도가 높았으며, 부모의 가공식품 섭취빈도가 높은 집단의 자녀가 탄산음료(p<0.05)에 대한 기호도가 높았다. 특히, 자녀의 가공식품 섭취빈도는 부모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는데, 부모의 가공식품에 대한 기호도 및 섭취빈도가 높을수록 자녀가 과일류(p<0.001)와 유제품류(p<0.05)는 적게 섭취하는 반면, 씨리얼류(p<0.001), 면류(p<0.001), 분식류(p<0.01), 과자류(p<0.001), 탄산음료(p<0.01), 패스트푸드(p<0.01)는 더 자주 섭취하였다.

본 연구결과들은 부모의 가공식품 소비행태가 자녀의 식행동, 식품 기호도 및 섭취빈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

들의 현명한 식품선택과 소비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학령기 어린이들의 건강한 식생활과 합리적인 식품선택을 위하여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An J-H & Kang K-O (2006). Consumption Type of Housewives about Organic and Instant Food. *The Korean journal of food and nutrition*, 19(1), 28-37.36(11), 1-17.
- Auld, G. & Boushey, C. J. & Ann, B. M. & Bruhn, C. & Gable K. & Gustafson, D. & Holmes, B. & Misner, S. & Novotny, R. & Peck, L. & et al. (2002). Perspectives on intake of calcium rich foods among Asia, Hispanic and white preadolescent and adolescent females. *J Nutr Educ Bhav*, 34(5), 242-251.
- Bell, R. & Marshall, D. W. (2003). The construct of food involvement in behavioral research: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Appetite*, 40, 235-244.
- Birch, L. (1987). The role of experience in children's food acceptance patterns. *J. Am. Diet. Assoc* 87(9 Suppl), 36-40.
- Birch, L. L. & Marlin, D. W. & Kramer, L. & Peyer. & Connie. (1981). Mother-child interaction patterns and the degree of fattness in children. *J. Nutr. EDU*, 13(1), 17-21.
- Birch, L. L. (1980). Effects of peer model's choices and eating behaviors on preschooler's food preferences. *Child Development*, 51, 489-496.
- Chang N-S (1996). Changes in Dietary Habits of Adults with Middle and Upper Income Levels in Seoul.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29(5), 547-558.
- Chen, M-F. (2007). Consumer attitudes and purchase intentions in relation to organic food in Taiwan: Moderating effects of food-related personality traits. *Food Quality and Preference*, 18, 1008-1021.
- Cullen, K. W. & Baranowski, T. & Rittenberry, L. & Cosart, C. & Owen, E. & Hebert, D. (2000). Socioenvironmental influences on children's fruit, juice and vegetable consumptility as reported by parents: Reliability and validity of measures. *Public Health nutr*, 3(3), 345-356.
- Engel, J. F. & Roger, D. & Blackwell. & P. W. Miniard(1995). *Consumer Behavior*(8th ed.), Forth Worth: The Dryden Press.
- Evans, J. & Ie Grange, D. (1995). Body size and parenting in eating disorders: A comparative study of the attitude of mothers towards their children. *Int J Eat Disord*, 18(1), 39-48.
- Hertzler, A. A. (1983). Children's food patterns; review. 1. Food preferences and feeding problems. *J. of Am. Diet. Assoc* 83, 555-560.
- Huang, C. L. (1993). Simultaneous-equation model for estimating consumer risk perceptions, attitudes, and willingness-to-pay for residue-free produce. *Journal of Consumer Affairs*, 27(2), 377-396.
- Jung K-A (2012). A Study on the Dietary Habits of 5th & 6th Grade Students and the Dietary Life Education by Teachers - Focused on the Elementary Schools in Chuncheon Area - . *The Korean journal of culinary research*, 18(3), 266-285.
- Jung S-A & Lee K-A (2007). Effects of a Nutrition Education Program Using Children's Books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Food Preferences and Eating Behavior.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ood Science and Nutrition*, 36(9), 1161-1171.
- Kang M-H & Yoon K-S (2009). Elementary School Students' Amounts of Sugar, Sodium, and Fats Exposure through Intake of Processed Food.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ood science and nutrition*, 38(1), 52-61.
- Kim A-J & Kim J-H (2003). A Study on Develop Food Program for Preschoolers. *The journal of Korea Early Childhood Education*, 10(1), 147-166.
- Kim E-Y & Park H-H (2004). A Study on Eating Habi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Higher Grade. *The Korean journal of food and nutrition*, 17(4), 393-404.
- Kim H-J & Jung K-A (2010).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 the Effect of Dietary Life Education Program about 'Processed Foods'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23(2), 267-294.
- Kim H-J & Kim M-R (2005). Consumer Attitudes towards Food Additives. *Journal of the East Asian Society of Dietary Life*, 15(1), 126-135.
- Kim H-J & Seo H-C (2012). The Relevance Between Intake of Sugar Snack and Aggression in Elementary School. *Journal of Brain Education*, 12, 63-93.
- Kim K-J (2013). A study on a Sales Promotion Strategy for HMR Products in Discount Stores. *Korean Journal of Culinary Research*, 19(4), 256-267.
- Kim K-N (1982).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Food Habits and Personality. *The Korean Journal of Nutrition*, 15(3), 97-201.
- Kim W-J & Kim B-H & Park Y-W (2000). The Purchasing Acts for the Commercial Processed Foods and The Awareness for the Food Additives. *Human Ecology Research*, 1(3), 71-72.
- Kirk, B. A. & Hughes, C. (1986). Long-term behavioral effects of parent involvement in nutrition education. *J Nutr Edu*, 18(5), 203-206.
- Klesges, R. C. & Stein, R. J. & Eck, L. H. & Isbell, T. R. & Klesges, L. M. (1991). Parental influences on food selection in young children and its relationship to childhood obesity. *Am. J. Clin. Nutr*, 53(4), 859-864.
- Ku U-H & Seo J-S (2005). The Status of Nutrient Intake and Factors Related to Dislike of Vegetables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mmunity nutrition*, 10(2), 151-162.
- Ku U-H & Seo J-S (2005). The Status of Nutrient Intake and Factors Related to Dislike of Vegetables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mmunity nutrition*, 10(2), 151-162.
- Lee J-E & Jung I-K (2004). The Perception of Parents on the Eating Habits and Nutritional Education of their Elementary School Children.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3(7), 66-77.
- Lee S-S (2004). A Study on Dietary Behavior of Children According to the Their Preferences for Fast Food. *Korean journal of community nutrition*, 9(2), 204-209.
- Ly S-Y & Kim K-E & Kwon S-J (2001). Food purchase Behavior of Taejon Full Time Housewives with Different Education Level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ood Culture*, 16(2), 99-108.
- Ro H-K & Jun S-N (1998). A Study on Eating Habits and Food Preference of Rural Elementary School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ietary Culture*, 13(1), 65-72.
- You D-R & Sim M-Y (1998). A Study on the Socially Responsible Attitude and Behavior of Consumer.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6(11), 1-17.
- 농림축산식품부(2013). '가공식품 소비자태도조사'

<국문요약>

본 연구는 부모의 가공식품 소비행태가 초등학생 자녀의 식행동-식습관, 식품 기호도 및 섭취빈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수행하였다. 경상북도에 소재하는 3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312명과 그들의 부모 3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자료 분석을 위하여 SAS 8.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한 신뢰도 검증, 교차분석, t-test 및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모의 가공식품 소비행태가 자녀의 식행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공식품에 대한 부모의 선호도, 섭취빈도, 긍정적인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식습관 및 간식섭취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가공식품을 구매할 때 부모가 식품표시를 확인하는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도 합리적인 소비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자녀의 가공식품에 대한 기호도 및 섭취빈도 역시 부모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가공식품 기호도가 높은 집단의 자녀가 씨리얼류($p<.05$), 패스트푸드($p<.001$), 탄산음료($p<.001$)에 대한 기호도가 높았으며, 부모의 가공식품 섭취빈도가 높은 집단의 자녀가 탄산음료($p<.05$)에 대한 기호도가 높았다. 특히, 자녀의 가공식품 섭취빈도는 부모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는데, 부모의 가공식품에 대한 기호도 및 섭취빈도가 높을수록 자녀가 과일류($p<.001$)와 유제품류($p<.05$)는 적게 섭취하는 반면, 씨리얼류($p<.001$), 면류($p<.001$), 분식류($p<.01$), 과자류($p<.001$), 탄산음료($p<.01$), 패스트푸드($p<.01$)는 더 자주 섭취하였다.

본 연구결과들은 부모의 가공식품 소비 행태가 자녀들의 식습관, 식품 기호도 및 섭취빈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들의 현명한 식품선택과 소비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학령기 어린이들의 건강한 식생활과 합리적인 식품선택을 위하여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논문접수일자: 2016.11.17, 논문심사일자: 2016.12.02, 게재확정일자: 2016.12.29